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문화부
발 신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
담당자: 김영환 대외협력실장(010-8402-1718)
발송일자 2024년 11월 21일(목)
제 목 [보도자료] 골든사도에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동 역사 전시 및 명부 공개 요청서 시민 의견 발송

사도광산 운영주체 골든사도에 조선인 강제동원 전시 및 '반도조선인명부' 공개 요청서 시민 의견 발송

-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 민족문제연구소는 11월 7일 사도광산의 운영주체인 골든사도(미쓰비시 자회사)에 조선인 강제동원의 전시와 '반도조선인 명부'의 공개를 요청하는 서한을 메일로 발송했습니다.
- 지난 7월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에 1,500여 명의 조선인이 강제동원 되어 강제노동을 당한 현장입니다. 그러나 골든사도가 운영하는 사도광산의 전시에는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골든사도는 조선인 강제동원의 명백한 증거인 '반도노무자명부'의 공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 민족문제연구소는 일본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2015년 메이지산업혁명유산 등재 당시부터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에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 민족문제연구소는 11월 7일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하고 '반도노무자명부'의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 50명의 의견을 골든사도에 전달한 데 이어, 11월 20일 52명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정기적으로 골든사도에 발송할 예정입니다.